

‘연기 여신’ 엄정아·김서형, 스크린서 무한도전

심장조이는 연기에 시청률 폭주
엄정아 이달말 영화 ‘뽕반’ 공개
상반기엔 ‘미성년’으로 연기변신
김서형도 ‘미스터주’ 스크린 외출

그야말로 ‘연기의 신’이란 수식어가 아깝지 않다. 배우 엄정아와 김서형이 드라마 ‘SKY캐슬’을 통해 주말 저녁 안방극장을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어느 때보다 대중의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두 배우가 여세를 몰아 스크린으로 그 활약을 이어간다.

엄정아와 김서형의 ‘폭주’ 덕분에 ‘SKY캐슬’의 시청률은 연일 급등하고 있다. 최근 방송분인 12일 19.2%(닐슨코리아)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1월23일 방송한 1회 시청률이 1.7%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 달반 동안 매회 ‘시청률 기적’을 이룬 셈이다.

이런 열기에 최근 더욱 거센 불을 지핀 주인공은 엄정아와 김서형이다.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는 이야기 전개 속에 두 배우는 보는 이의 심장을 조이는 연기로 차원이 다른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결말까지 남은 이야기는 이들의 팽팽한 대립으로 채워질 거란 예상 속에 물러설 수 없는 연기 대결까지 예고하고 있다.

폭등한 시청률이 증명하듯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두 배우는 드라마 종영 직후 스크린으로 그 무대를 옮긴다. 물론



배우 엄정아(왼쪽)와 김서형이 안방극장에 이어 스크린으로 무대를 옮겨 ‘뽕반 연기’를 이어나간다. 스포츠동아DB·사진제공 | 롯데엔터테인먼트

배우들의 꾸준한 연기 활동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지만, 엄정아와 김서형은 단연 화제의 중심에 놓인 만큼 이들의 새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의 시선이 향한다.

엄정아는 이달 말 영화 ‘뽕반’을 내놓는다. 드라마 종영과 맞물려 쉼 없이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행보다. 설 연휴를 겨냥한 영화는 경찰 뽕소녀 전담반의 활약을 그린 작품. 엄정아는 경찰 내사과장 역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트 경찰의 전형을 내보인다.

지난해 500만 관객을 동원한 ‘완벽한 타인’을 통해 스크린에서도 그 진가를 과시한 엄정아는 ‘SKY캐슬’의 성공까지 맞물려 배우로서도 새로운 전성기를 맞고 있다. ‘뽕반’에 이어 상반기 개봉을 준비하는 또 다른 영화 ‘미성년’을 통해서도 과감한 연기 변신을 이어간다.

‘SKY캐슬’을 자신의 대표작으로 만들고 있는 김서형도 오랜만에 스크린에 나선다. 이성민과 호흡을 맞춘 ‘미스터주’ 촬영을 마친 상태.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을 갖게 된 정보요원의 이야기에서 김서형은 국가정보국을 이끄는 국장 역으로,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극의 중심을 잡는 책임을 맡는다.

김서형의 영화 참여는 2017년 ‘악녀’ 이후 2년 만이다. 그 사이 ‘SKY캐슬’에서 증명한 카리스마를 통해 대중을 사로잡은 만큼 그 후광효과가 영화로도 이어질 거란 기대가 따른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연예

13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해시태그 컷



딸기같은 설리

눈을 땔 수 없는 ‘딸기의 유혹’이다. 에프엑스 출신 설리가 딸기밭에서 삼금한 매력을 발산했다. 빨간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설리와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싱그러움 그 자체다. 신발을 꺾어신은 것도 모르고 딸기 구경에 빠진 엉뚱함도 웃음을 유발한다. 설리의 발랄한 일상에 팬들은 “귀엽다”, “과즙 미인”이란 이런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동아 #설리 #딸기밭그녀 #딸기의유혹

감독 100명이 100초짜리 영화 100편 제작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 본격화

이창호 감독 배우 장미희 위원장
영화제·세미나·해의 홍보도 병행

한국영화 100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영화진흥위원회가 구성한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이벤트 등 다채로운 무대를 펼칠 전망이다.

13일 한국영화 100년 기념사업추진위(추진위)에 따르면 기념사업은 형식과 공간을 넘나든다. 영화제와 학술대회, 영화 제작, 해외 홍보 등이 굵은 줄기를 이룬다. 우선 100명의 감독이 한국영화 100년을 주제로 한 100초 분량의 영화를 각기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 관계자는 “이를 엮어서 한 편의 영화로 완성해 극장에서 상영할 것인지 아니면 각 작품을 모바일 등에서 공개할지 여부는 좀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 한국영화 100년을 학술적으로 되새기는 작업도 이어진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한국영화 99주년, 100년의 문턱에서’ 한국영화의 기원, 표상, 비전’을 주제로 한 기념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기념사업과 이벤트는 ‘영화의 날’인 10월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 10월27일 최초의 한국 영화로 평가받는 ‘의리적 구토’가 1917년 서울 종로 단성사 무대에 오른 날이다.

관계자는 “대규모 한국영화 100년 기념 영화 상영회, 영화촬영 현장 재현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무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해외 영화제를 중심으로 한국영화 100년을 알리는 홍보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창호 감독과 배우 장미희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가 한 달에 두 세 차례씩 회의를 열어 기념사업 추진 방향과 실행계획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면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은 2월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여사 기자 tadada@donga.com



‘힘센여자 도봉순’ 미국판도 나오나

박형식·박보영이 주연한 드라마 ‘힘센여자 도봉순’이 미국에서 리메이크된다.

13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힘센여자 도봉순’을 미국 현지 시청자에게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이기 위한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관계자는 “현지 방송사로는 CBS가 현재 가장 유력하게 꼽히며 궁정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힘센여자 도봉순’은 2017년 봄 국내 방영 당시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해외에 판권을 판매했다. 판권을 구입한 나라 가운데 가장 높은 호감을 드러냈던 미국 측이 리메이크로 이어가고 있다. 드라마는 세계 최대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 이미 전 세계 시청자와 만나고 있다.

앞서 또 다른 한국 드라마인 ‘굿 닥터’가 미국 ABC 리메이크작으로 선보이며 눈길을 모았다. 2013년 KBS가 방송한 ‘굿 닥터’는 2017년 ABC가 방영해 높은 시청률과 화제를 모아 지난해 시즌2가 제작된 한국드라마 리메이크작이라는 최초의 기록을 쓰기까지 했다.

또 최근 MBC ‘복면가왕’이 ‘더 마스크드 싱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돼 올해 초부터 미국 폭스 채널이 첫 방송하며 폭발적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이 같은 한국 콘텐츠의 기세가 ‘힘센여자 도봉순’ 미국 리메이크작에 대한 현지 시청자의 호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MBC 간판 김태호 PD가 돌아온다

MBC서도 상반기 컴백 공식화
무도 시즌2? 다른 프로 도전?
어떤 변화 물고 올지 관심집중

MBC 김태호 PD가 상반기 새 프로그램으로 돌아온다. 13년간 연출을 맡았던 ‘무한도전’을 지낸해 3월 끝내 1년 여 만이다.

MBC는 10일 방송문화진흥회에 보고한 ‘2019년도 기본운영계획’에 “김태호 PD가 올해 상반기 중 복귀해 예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 PD의 복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PD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방송관계자들은 김 PD의 신작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김 PD는 ‘무한도전’ 종영 이후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연수를 다녀오는 등 긴 휴식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태호 PD의 신작이



김태호 PD

‘무한도전’ 시즌 2인지, 새로운 프로그램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김 PD는 지난해 ‘무한도전’ 종영 기자회견 당시 “‘무한도전’으로 돌아온다는 방점을 찍으니 생각이 넓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스스로 그 틀을 벗겨내고 싶어 ‘무한도전’인지 아닌지를 정하지 않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중적일지는 몰라도 색깔이 분명한 것으로 인사드리고 싶다”고 강조하면서 ‘무한도전’이 아닌 새 기획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MBC는 김 PD의 컴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무한도전’ 이후 이를 대체할 만한 킬러 콘텐츠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MBC는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해 왔지만 모두 큰 재미를 보지 못했다. 그나마 ‘나 혼자 산다’와 ‘전지적 참견 시점’ 정도가 화제성이 높지만 ‘무한도전’의 빈자리를 채웠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MBC는 김 PD의 복귀와 함께 “핵심 콘텐츠 투자를 더욱 강화해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문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해 콘텐츠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현지에서 먹힐까?’ 시즌제 시작?

태국·중국편 이어 3월 미국편 촬영
이연복·허경환 확정 정준영 조율중

케이블채널 tvN 예능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가 시즌제 정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13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현지에서 먹힐까?’가 미국편 제작을 확정했다. 제작진은 3월 초 현지로 출국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시즌2에 이어 이연복 셰프와 개그맨 허경환이 출연하고,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레스토랑 개업을 준비하며 요식업에 도전한 가수 정준영이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이다. 시즌3 제작을 위한 준비를 차린 셈이다.

이로써 또 하나의 시즌제 프로그램 탄생에 앞두고 있다. ‘현지에서 먹힐까?’는 지난해 3월 시즌1 태국편을 시작으로 그해 9월 시즌2 중국편을 성공적으로 방영했다. 시즌1은 시청률과 화제 면에서 다소 아쉬운 결과를 얻었지만, 시즌2가 이를 회복하며 시즌3 제작에 불씨를 키웠다. 시즌1에서는 홍석천과 신화의 이민우, 연기자 여진구가 참여했고, 시즌2는 이연복 셰프를 중심으로 예능프



tvN ‘현지에서 먹힐까’

로그램 출연 경험이 없는 김강우와 서은수 등 이색 조합으로 재미를 줬다.

‘현지에서 먹힐까?’는 이전까지 여행프로그램이나 ‘먹방’과 ‘육방’을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과 달리 여행지의 현지 음식과 관련해 전문성이 높은 인물을 섭외해 차별화를 내세웠다. 여행지에서 출연자들이 현지 음식을 얼마나 한국식으로 재해석해 손님들에게 내놓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섭외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시즌1의 홍석천과 시즌2의 이연복 셰프는 각각 현지 음식과 국내 요리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했다.

프로그램의 한 관계자는 “음식문화가 엮이술했던 아시아권과 달리 미국에서는 출연자들의 도전정신을 더욱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